

창조 세계와 선교

성경 본문	로마서 8:19~23
요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1절).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창조의 아버지
이과의 목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에는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창조세계의 선한 청지기로 나아가도록 다짐한다.



I. 생각하기

1.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자연 재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자연 (창조세계)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II. 생각 넓히기

1. 신음하는 창조세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는 대규모 자연 재해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대표적인 자연 재해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일어난 6.8 규모의 강한 지진으로 3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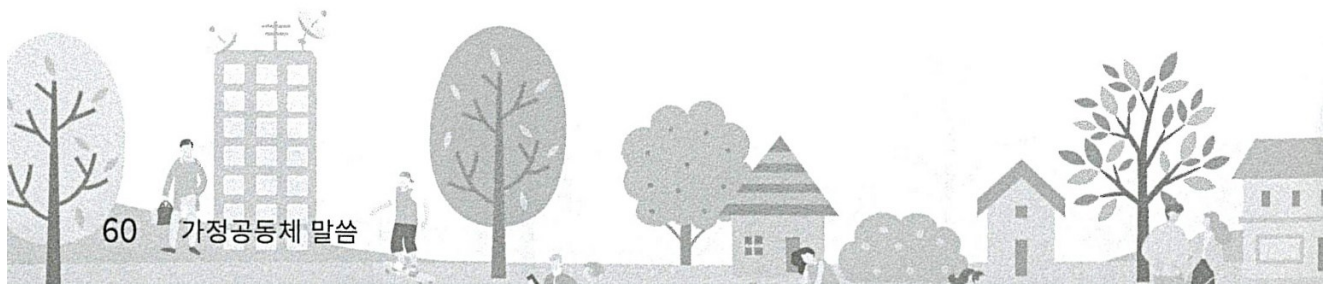
지중해 폭풍으로 인한 댐 붕괴에서 시작된 리비아 홍수는 2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지상의 천국으로 불리던 하와이는 끔찍한 산불이 휩쓸고 간 다음 수십 명의 피해자와 함께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마다 마스크를 통해서 보도된 안타까운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보도나 대중들의 관심도 점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과, 삶이 뿌리째 흔들린 피해자들의 고통과, 미래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의 절망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유엔 산하 기관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모든 인류가 미래에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리포트를 하나 발표했습니다.¹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인해 지구의 온도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2.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는 피조물

어떤 사람들은 창조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 자세가 이런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구절이 창세기 1:28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일방적인 착취와 무절제한 남용으로 이해한 사람들도

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Urgent climate action can secure a liveable future for all.” Press Release, 20 March, 2023.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이해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언급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생겨난 위기의식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청지기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에도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사 43:21).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창조주를 향한 찬양에 모든 만물을 초대합니다 (시 148편). 시편 기자는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 그 속에 있는 것들, 산과 나무, 모든 짐승들을 향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피조물 역시 우리가 고대하는 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 가운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고통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러한 영광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보살피고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흔히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피조물과 한 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 창조세계와 선교

피조물에 대한 이러한 청지기의 사명과 교회의 책임이 실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에 있었던 로잔운동 케이프타운 서약²⁾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2. The Cape Town Commitment by Lausanne Movement. <https://lausanne.org/content/ctc/ctcommitment#p1-7>: 12/08/2023 접속.



“우리는 성경이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선포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총체적 선교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이 죄로 인해 깨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와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와 창조세계 모두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선교의 대상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적 선교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창조세계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단지 사회운동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과 교회들의 사역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교단과 신학의 차이를 넘어 모든 교회의 사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부로 와 닿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오랫동안 선교 역사를 가르친 데이나 로버트 (Dana Robert) 교수 역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5월 한국 새문안 교회에서 있었던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 첫 번째 강연에서 그녀가 강조한 것이 오늘날 선교의 새로운 최전방 (Frontier)인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창조세계에 대한 돌봄 (Creation Care)입니다.³ 피조물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 모든 창조세계를 돌보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4. 녹색교회 되기

창조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운동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기독교 환경

3. Dana Robert, “Frontiers, or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14th Underwood International Symposium, Unpublished eBook, 51-52. <http://www.saemoonan.org/ebook2016/ecatalog5.asp?Dir=148&catimage=4&callmode=admin>. 보스턴 대학교 신학부에 속해 있는 세계 기독교와 선교 센터(Center for Global Christianity and Mission)는 북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행한 선교 관련 리서치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선교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지역 안에서 전세대로(The Global in Local), 2. 지리적인 접근에서 세대별 접근으로(From Geography to Generations), 3. 주변으로부터의 선교 (Mission from the Margins), 4. 문화의 차이를 넘어 문화적 협력으로(Intercultural over Cross-Cultural), 5. 창조세계에 대한 돌봄(Creation Care).



운동연대가 2006년부터 시작한 녹색교회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선정된 교회들의 연합인 녹색교회 네트워크도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색교회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서 적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교회 식사나 활동에 일회용품 줄이기
-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 동참하기
- 무공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 교회 정식 조직으로 사회환경선교부 조직, 사회선교사 선발과 후원
- 담장을 헐고 나무 울타리 만들기
- 과도한 냉난방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사용 줄이기
- 육식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 충동구매와 과소비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
-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이 많은 양이 아니면 비닐 봉지를 이용하지 않기
- 장보기 가방을 따로 이용하기



III. 생각살기

1. 창조세계 보호와 보전을 위해 당신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환경선교를 위해 우리 소그룹이나 교회 차원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